



예술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나의 미술관〉

조안 리우 / 단추

마루는 엄마랑 미술관에 갔어요. 그림 앞에 선 어른들은 골똘히 그림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지만 마루는 그림보다 밖에 있는 나뭇잎과 창문에 반사된 그림자들이 더 재미있어요. 의자에 앉아 세상을 거꾸로 보면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마루가 보는 모든 것은 예술이 되고, 예술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박수현 / 국민서관

〈세상을 들썩인 거대한 쇠덩이, 에펠탑〉

파리의 유명한 건축물 에펠탑은 처음 지어질 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당시 프랑스 예술가들에게 철탑은 흉물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에펠탑은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었답니다. 에펠탑을 만든 에펠,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 무사히 에펠탑을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내 머릿속에는 음악이 살아요!〉

수잔 슬레이드 / 책속물고기

조지 거슈윈에게 모든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어요. 버스를 타면서 들던 달그락 소리, 기차를 타면서 들던 덜커덩 소리 모두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이 되었답니다. 다양한 소리를 즐겨 들던 조지는 마침내 폴 화이트먼 악단과 함께 재즈와 클래식이 어우러진 '랩소디 인 블루'를 선보이게 되었어요. 클래식과 재즈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편견을 깬 곡이었지요.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던 조지는 이후에도 새로운 곡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브 로젠스톡 / 위즈덤하우스

〈소리나는 물감 상자〉

러시아 모범 소년이 되고 싶은 바실리 칸딘스키는 이모에게 물감 상자를 선물 받았습시다. 바샤가 붓으로 물감을 휘젓자 소리가 들렸어요. 색깔들이 멋진 교향곡을 연주하는 소리예요. 바샤는 색깔들이 내는 소리를 모른 척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바샤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내는 추상 미술의 선두두자가 되었습니다.

